

사도행전 12장 배후의 유대와 로마 관계사 - 아그립바 1세를 중심으로 -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Jewish–Roman Relations Reflected in the Life of Herod Agrippa I

문우일 (Wooil Moon)*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Jewish–Roman relations reflected in the life of Marcus Julius Agrippa I who appears in Acts 12 as “Herod the king” in order to provide a historical information applicable to the studies of the apostolic age and the New Testament background. Although Agrippa I was one of the Jewish leaders who were most influential to the formation of Jewish and Roman political environments in early Christianity, previous studies have insufficiently discussed this topic. Daniel R. Schwartz’s work (1990) is the only contemporary monography on Agrippa I, and the other previous studies on the king are limited to a specific issue or period of his life. Therefore, this paper resumes discussions on Agrippa I and attempts to provide a balanced view of his life and role both in Rome and Judaea. For this purpose, the paper uses not only Hellenistic Jewish and/or early Christian sources, such as the New Testament, the works of Josephus and Philo of Alexandria, and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but also non–Semitic sources, such as Tacitus’ *Annals and Histories*, Suetonius’ *Lives of the Cesars*, and Dio Cassius’ *Roman History*. These sources’ viewpoints of Agrippa I are sligh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they obviously indicate that the king was not only unilaterally dominated by Rome, but he actively exploited the political situation of Rome to achieve his goals and to pursue the interests of his nation.

Key Words : Herod Agrippa I, Acts of the Apostles 12, Flavius Josephus, Philo of Alexandria, Gaius Caligula, Tiberius Claudius

* 서울신학대학교(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교양학부 교수,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 woel@naver.com

2019년 06월 14일 접수, 07월 07일 최종수정, 07월 24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아그립바 1세(Marcus Julius Agrippa I)의 삶을 문헌에 기초하여 재건함으로써, 그리스도교 형성 당시의 유대와 로마 관계사를 규명하고 신약성서 배경사 이해를 위한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당시 로마지도자들과 유대지도자들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정치·외교적 사무 관계 뿐 아니라 교육과 일상생활 영역에까지 밀접하게 소통하며 상호 영향을 끼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신약성서 배경사를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당시 로마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신약성서는 유대와 로마의 관계를 간헐적으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교 형성 당시의 유대와 로마 관계사를 다룬 세속 문헌 자료는 방대하다. 그 자료들 가운데 이 논문은 특별히 ‘헤롯 아그립바 1세’에 관한 기록에 집중하여, 그가 어떻게 자라 어떤 인맥 속에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유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확장하였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유대와 로마 관계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아그립바 1세는 사도시대의 정치 배경을 형성한 주요 인물들 중 하나로서 신약성서와 원시그리스도교 연구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선행연구는 불충분하여, 슈바르츠의 연구(Schwartz, 1990) 외에는 일부 사료의 단면만 소개하거나, 아그립바 1세의 삶의 특정 시기만을 다루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야기식으로 서술하는 데 그쳤다.¹⁾ 슈바르츠는 히브리어 원작(1987)을 기반으로 영역 개정판을 출판하였는데, 그의 주된 목적은 아그립바 1세를 통하여 유대와 로마 관계사를 살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립바 1세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문서비평 하여 요세푸스가 어떤 문헌 자료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아그립바 1세를 묘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었다. 슈바르츠 연구의 문제점은 요세푸스가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가 추측한 문헌 자료들이 현존하지 않고, “아그립바의 삶”(Vita of Agrippa) 내지 “안티파스의 삶”(Vita of Antipas) 등이라고 그가 나름대로 명명하고 내용을 확정된 가설 자료라는 데에 있다. 비록 슈바

1) 슈바르츠는 자료비평을 앞세워 “추측” 수준의 제안을 하기도 하므로 그의 자료비평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충분한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rause, 2017: 25 참조). 국내 선행연구들 가운데 박찬웅의 연구들은 특정 주제를 논하면서 아그립바 1세를 제한적으로 다룬다(박찬웅, 2009; 2017). 류모세(2013)는 출처를 거의 밝히지 않는다.

르츠의 저서는 아그립바 1세에 관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자료들에 관한 가설들을 장황하게 세우고 복잡하게 비교하면서 유대고대사와 유대전쟁사의 상호 모순·저축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명하기를 시도하므로, 유대 역사에 정통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난해하고, 현존 사료와 가설 자료의 경계를 분간하기도 어렵게 한다. 더구나 신약성서는 아그립바 1세와 헤롯 가문의 다른 지도자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헤롯” 내지 “헤롯 왕”이라고 표기하므로 유대 역사에 정통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여러 헤롯들에 관한 기록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아그립바 1세에 관한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 가설이 아닌 현존 사료들을 바탕으로 한 그에 관한 개별 정리가 절실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아그립바 1세에 관한 행로와 사적(事績) 정리를 시도하는 바, 사도 시대에 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위하여는 더 상세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그립바 1세를 탐색하기 위한 1차 자료로는 아그립바 1세를 직접 언급한 사도행전 12장 뿐 아니라 신약성서의 다른 본문들도 참조하겠다. 또한 아그립바 1세 및 2세와 동시대를 살면서 유대 및 로마 황실과 교류한 요세푸스와 필로(Philo of Alexandria)의 저서를 비평적으로 참조하겠다. 요세푸스는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고 아그립바 1세가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의 사분봉왕으로 임명되는 해에 태어났다고 하는데(37 또는 38 AD; Josephus, *Life*. 1.5; *Ant.* 18.237-238), 그가 쓴 **유대고대사와 유대전쟁사**는 아그립바 1세에 관한 가장 상세한 현존 기록이다. 또한 **유대고대사**에 이어지는 **자서전**과 요세푸스의 마지막 작품인 **아피온 반박문**은 당시 정황을 재건하는 데 요긴하다. 아피온이 칼리굴라를 알현한 그리스인 사절단의 대표였다면 유대인 사절단의 대표는 필로였는데, 필로의 저서들 가운데 특히 **가이우스 사절단**(*Legatio ad Gaium*)은 아그립바 1세에 대한 주요 1차 자료들 중 하나다.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비유대계 자료인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의 **연대기**(*Annales*)와 **역사**(*Historiae*), 그리고 수에토니우스(Gaius Suetonius Tranquillus)의 **가이사들의 전기**(*Lives of the Caesars*)와 카시우스(Dio Cassius)의 **로마사**(*Roman History*)도 참조하겠다.²⁾

2) 원로원 출신의 타키투스(56-117년경)는 17년 동안 30권의 역사서를 집필하였는데, **연대기**(*Annales*)는 티베리우스 등극부터 네로 사망까지의 기간(14-68년)을 다루었고, **역사**(*Historiae*)는 네로 사망부터 도미티아누스 사망까지의 기간(69-96)을 다루었다. 수에토니우스(69-122년경)는 수사학을 가

II. 신약성서에서 헤롯들

신약성서는 세 명의 서로 다른 헤롯을 모두 “헤롯”(Ἡρώδης)이라 표기하므로 독자들은 맥락에 따라 어떤 헤롯인지 분별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마태복음이라도 2장에서 “헤롯” 내지 “헤롯 왕”(ὁ βασιλεὺς Ἡρώδης)은 통상 ‘헤롯대왕’(Herod the Great)이라 부르는 ‘헤롯 1세’를 뜻하고(마 2:1, 3, 7, 12, 13, 15, 16, 19, 22), 14장의 “헤롯”은 헤롯 1세의 아들들 중 하나인 ‘갈릴리 사분봉왕 헤롯 안티파스’(Ἡρώδης Ἀντιπᾶς ὁ τετραρχῆς τῆς Γαλιλαίας)를 뜻한다(마 14:1, 3, 6). 마가복음 6장과 8장에도 “헤롯” 내지 “헤롯 왕”(ὁ βασιλεὺς Ἡρώδης)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막 6:14, 16, 17, 18, 20, 21, 22, 8:15). 또한 누가복음 1장 5절의 “헤롯 왕”(Ἡρώδης βασιλεὺς)은 ‘헤롯대왕’을 지칭하고, 누가복음의 다른 본문들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한다(눅 3:1, 19; 9:7, 9; 13:31; 23:7, 8, 11, 12, 15). 누가의 다른 책 사도행전 4장과 13장에도 “헤롯” 내지 “사분봉왕 헤롯”(Ἡρώδης ὁ τετραρχῆς)이 나오는데 이는 ‘안티파스’이고(행 4:27; 13:1), 12장의 “헤롯” 내지 “헤롯 왕”(Ἡρώδης ὁ βασιλεὺς)과 다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12장의 헤롯은 헤롯대왕의 손자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립바 1세’(Marcus Julius Agrippa I)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이들과 달리 헤롯 가문의 지도자일지라도 신약성서가 ‘헤롯’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예컨대 안티파스를 제외한 헤롯대왕의 다른 아들들은 “그(안티파스)의 형제 빌립”(Φίλιππος ὁ ἀδελφὸς αὐτοῦ, 마 14:3; 막 6:17; 눅 3:1)과 “아켈라오스”(Ἀρχελαῖος, 마 2:22) 등으로 칭하고, 헤롯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립바 2세’는 “아그립바” 내지 “아그립바왕”(Ἀ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ὺς)이라 칭한다(행 25:13, 22, 23, 24, 26; 26:1, 2, 19, 27, 28, 32). 요컨대 신약성서는 ① ‘헤롯대왕’(헤롯 1세)과 ②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③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 1세’만을 “헤롯” 내지 “헤롯 왕”이라 칭하는 것이다.

‘헤롯 아그립바 1세’(이하 “아그립바 1세”)에 대한 사도행전 12장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르치다가 트리아누스 및 하드리아누스의 비서관을 지냈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도미티아누스까지 12명의 카이사르들의 전기(*De vita Caesarum*)를 14권으로 기록했다. “Lives of the Caesars, Volume II”. Retrieved from <http://www.hup.harvard.edu/catalog.php?isbn=9780674995659> (2019. 5. 8.). 이 논문에서는 다음 영역본을 필자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Suetonius(1997-1998), *Lives of the Caesars*, 2 Vols, LCL 31 and 38.

1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 고자 하더라. 5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11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중략) 19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20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말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헤롯이 날을 택하여 의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목할 것은 고대 문헌 가운데 오로지 사도행전만이 아그립바 1세를 “헤롯(왕)”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다(Schwartz, 2009: 303 n. 21; Barrett, 1994: 573). “요세푸스는 가끔 사분봉왕 안티파스를 ‘헤롯’이라고 하지만(*Ant.* 18:104-6, 243-55), 아그립바 1세 만큼은 일관되게 ‘아그립바’라고 한다”고 키너(Craig S. Keener)는 지적한다(Keener, 2013: 1868). 필로도 아그립바 1세를 “헤롯(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아그립바” 또는 “아그립바 왕” 내지 “마르쿠스 아그립바”라고 한다(Philo, *Flacc.* 1.23, 29, 103; *Legat.* 1.179, 261-269, 291, 294, 325, 331, 333, 337). 이에 관하여 퍼보(Richard I. Pervo)는, 사도행전이 아그립바 1세를 “헤롯 왕”(King Herod)이라고 한 것은 “역사”(history)라기보다는 “사악한 폭군에 대한 민속적(folkloristic)” 표현으로서, 아그립바 1세를 “헤롯대왕(마 2:16-18)” 내지 “출애굽기의 바로” 내지 “선지자를 참수한 ‘헤롯(안티파스)왕’(‘왕’이 아님; 막 6:14-29)”에 빗대기 위한 장치라고 바르게 설명한다(Pervo, 2009, 302-303).³⁾ 키너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특히 누가-행전이 “헤롯 왕”(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고 바르게 지적한다.⁴⁾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이 아그립바 2세를 “헤롯 왕” 대

3) 우리말로 “사분봉왕”이라는 표현에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사분봉왕도 왕의 일종인 것처럼 보이나, 신약성서가 쓰인 그리스어로 “왕”은 *βασιλεύς*이고, “사분봉왕”은 *τετράρχης*이므로, 둘은 확연히 구분된다. 아그립바 1세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41-44 AD) 전후로 로마 총독의 팔레스타인 지배 시기는, 그 이전인 6-41 AD(1차)와 그 이후인 44-66 AD(2차)로 나뉜다. 참조: 박찬웅, 2017, 197.

4) “눅 3:1, 19; 9:7, 9; 13:31; 23:7-15; 행 4:27; 13:1.” Keener, *Acts*, 1868. 존슨은 아그립바 1세가 누가-행전에 등장하는 세 번째 “헤롯”임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헤롯대왕(눅 1:5),”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눅 3:1, 19; 8:3; 9:7-9; 13:31; 23:7-15; 행 4:27)다. Johnson, 1992: 210.

열에 넣지 않고 다만 “아그립바”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하여 키너는 사도 행전 집필 당시에 아그립바 2세가 집권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Keener, 2013, 1869).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그립바 2세 치세 때 사도행전을 저술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불충분하다.

Ⅲ. 아그립바 1세의 출현 배경

헤롯 가문이 유대 통치권을 장악한 계기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두메 출신 안티파터는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공격할 때 폼페이우스에게 가담했다. 폼페이우스가 죽자 안티파터는 카이사르에게 전향하여 카이사르가 툴레미 13세에게 포위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구출하는 데에 기여한다(47 BC)(Josephus, *J.W.* 1.131; *Ant.* 14.127-136). 카이사르는 안티파터를 유대 총독(procurator)으로 임명하였고, 카이사르는 안티파터의 큰아들 파사엘을 예루살렘 사분봉왕으로, 작은아들 헤롯을 갈릴리 사분봉왕으로 임명하도록 허락했다. 당시 헤롯의 나이는 15세가 아니라 25세였던 것 같다(Josephus, *Ant.* 14.143, 158; 17.148).⁵⁾ 머지않아 파사엘은 자살했으나, 도전적인 헤롯은 날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의 도움으로 유대의 왕권을 거머쥔다(40 또는 39 BC)(Josephus, *Ant.* 14.374-389). 이후 3년여 동안 헤롯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스모니아 왕조 힐카누스의 손녀 마리암네와 결혼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안티고누스 2세를 처형함으로써 유대의 실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Josephus, *Ant.* 15.394-491).

집권 중에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충성하는 한편, 질투심과 정권 야욕에 불타 17세의 처남 아리스토틀루스 3세와 아내의 조부 힐카누스와 아내 마리암네와 장모 알렉산드라와 세 명의 아들들을 암살하거나 처형했다(Josephus, *Ant.* 15.50-55, 223, 230-236, 251). 헤롯이 죽인 아들들은 마리암네가 낳은 알렉산드라와 아리스토틀루스 4세, 그리고 이두메인 도리스가 낳은 안티파터 2세였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참패하여 실권하였을 때(31 BC),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를

5) 요세푸스는 *Ant.* 14.158에서 당시 헤롯이 “15세였다”고 기록하였으나, 같은 책 17.148과 비교할 때 25세가 맞을 것이라고 한다. 성서자료연구원 역, 1992, 365 n. 256.

찾아가 재신임을 받고 주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Josephus, *Ant.* 15.187-197). 그는 로마에서 왕위를 받은 지 37년 만에, 아들 안티파터를 처형한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Josephus, *Ant.* 17.191).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눅 2).

요세푸스의 보도에 기초하여 헤롯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재건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⁶⁾

(1) 도리스(Doris)는 이두메인으로서 안티파터(Antipater)를 낳았다. 안티파터는 아버지와 고모 살로메를 해치려고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발각되어 헤롯대왕이 죽기 5일 전에 처형되었다(Josephus, *Ant.* 17.19-22; *J.W.* 1.663-664).

(2) 마리암네(Mariamne)는 대제사장 시몬의 딸로서 빌립(Herod Philip)과 헤로디아스(Herodias)를 낳았다. 빌립은 이복형제 아리스토틀루스의 딸 헤로디아스와 결혼하였으나 안티파스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마 14:3-6; 막 6:17-22; 눅 3:19)(Josephus, *Ant.* 17.14; 18.109-110, 136).

(3) 말다케(Malthace)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안티파스(Herod Antipas, 4 BC-39 AD)와 아켈라오스(Herod Archelaus, 4 BC-6 AD)와 올림피아스(Olympias)를 낳았다.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아(Peraea) 지역의 사분봉왕(tetrarch)이었는데 이곳의 세액은 매년 200달란트였다(Josephus, *Ant.* 17.188, 318). 안티파스는 페트라 왕의 아레타스왕의 딸과 결혼했다가 이복동생 빌립(대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의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스를 아내로 맞이했으며(마 14:3; 막 6:17; Josephus, *Ant.* 18.109-110), 이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후에 아레타스 왕의 공격을 받고 참패했다(Josephus, *Ant.* 18.111-119; 마 14:1-12; 막 6:14-29). 안티파스는 티베리아스 시를 건설하였고(요 6:1, 23; 21:1)(Josephus, *Ant.* 18.36), 예수께 “여우”라 불리었으며(눅 13:31-33), 예수를 심판하였다(눅 23:7-12).

말다케의 다른 아들 아켈라오스는 헤롯대왕의 아들 알렉산더의 아내 글라피라와 불의한 결혼을 하였다(Josephus, *Ant.* 17.349-350).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는 이분봉왕(ethnarch)(매년 세액은 600달란트)이었다(Josephus, *Ant.* 17.317, 320), 유대인들이 아우구스투스에게 폭정을 고발하여 집권 10년만에 갈리아(Gaul)로 유배 당했다(마 2:22)(Josephus, *Ant.* 17.344).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Quirinius)가 관할하게 되었다(Josephus, *Ant.* 17.188, 342-355).

말다케의 딸 올림피아스는 헤롯의 동생 요셉의 아들 요셉과 결혼하였다. 그 아들 안티파스와 아켈라오스는 로마에서 유대인이 양육했다고 한다(Josephus, *Ant.* 17.20). 올림피아스의 딸 마리암네는 칼키스 사분봉왕 헤롯과 결혼하였다.

(4) 클레오파트라(Cleopatra)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헤롯(Herod)과 빌립(Herod Philip)을 낳았다. 빌립은 이두래와 드라고닛의 사분봉왕(tetrarch)이었고(4 BE-34 AD; 눅 3:1)이었고, 이 지역의 세액은 매년 100달란트였다(Josephus, *Ant.* 17.189, 319). 빌립은 가이사라와 벳새다를 건설

6) Josephus, *Ant.* 17.19-22; *J.W.* 1.562-563. 생멸연도는 류호성, 2017, 190에서 재이용한 Kokkinoas, 1998, 245을 보라.

했고(Josephus, *Ant.* 18.28, 106-108), 헤로디아스의 딸 살로메와 결혼했다.

(5) 마리암네(Mariamne)는 알렉산더와 알렉산드라의 딸로서(Josephus, *Ant.* 15.23), 알렉산더(Alexander)와 아리스토틀루스(Aristobulus)와 키프로스(Cypros)와 살람프시오(Salampsio)와 한 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Josephus, *Ant.* 17.12). 특히 알렉산더는 준수한 용모에 사냥, 격투, 화술이 뛰어났는데, 사마리아에서 헤롯대왕에게 교수형을 당하였다(Josephus, *Ant.* 16.394-401). 이후 그의 부인 글라피라(Glaphyra)는 아켈라오스의 아내가 되었다. 알렉산더는 글라피라와 사이에서 티그라네스(Tigranes)와 알렉산더(Alexander)를 낳았다.

마리암네의 다른 아들 아리스토틀루스도 형 알렉산더와 함께 교수형 당했다. 고모 살로메의 딸 베르니케(Berenice)와 결혼하여 헤롯(칼키스), 아그립바 1세, 아리스토틀루스, 헤로디아스, 마리암네를 낳았다(Josephus, *Ant.* 17.12). 아리스토틀루스의 딸 헤로디아스는 삼촌 빌립의 아내였다가 삼촌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었다. 아들 아그립바 1세는 후에 유대 왕이 된다(37-44 AD). 아들 헤롯은 칼키스의 사분봉왕이 되는데, 이는 아그립바 1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부탁한 결과였다(Josephus, *Ant.* 19.277; *J.W.* 2.217).

이밖에도 헤롯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더 있었던 것 같다. 그 가운데 (6)팔라스(Pallas)는 파사엘(Phasaelus)을 낳았고, (7)페드라(Phedra)는 록사나(Roxana)를 낳았고, (8)엘피스(Elpi)는 살로메(Salome)를 낳았고 (9)또 다른 부인은 헤롯의 사촌으로만 알려졌으며, (10)다른 부인은 헤롯의 조카(형제의 딸)로만 알려졌다.

마리암네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는 아버지 헤롯대왕에게 처형당했으나,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 아그립바 1세가 훗날 유대 왕이 된다(37 AD). 아그립바 1세는 조부 헤롯대왕이 죽기 전부터 로마에서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 베르니케(Bernice)는 티베리우스 황제(13-37)의 ‘형제’인 드루수스의 아내 안토니아(Antonia)와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Josephus, *Ant.* 18.143). 안토니아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갈리굴라(Gaius Caesar Caligula, 37-41 AD)의 할머니이자, 역시 황제가 되는 클라우디우스(Tiberius Claudius Nero, 41-54 AD)의 어머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뱌사니아(Vipsania)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도 ‘드루수스’가 있었는데, 아그립바 1세는 로마에서 드루수스(티베리우스의 형제)의 아들 클라우디우스(Tiberius Claudius Nero, 41-54) 및 드루수스(티베리우스의 아들)와 함께 자랐다(Josephus, *Ant.* 18.143, 165).

주전 4년에 헤롯대왕이 죽자, 그가 다스리던 땅을 그 아들들이 나누어 다스렸다. 헤롯 빌립(1)은 자신의 조카 헤로디아스와 결혼하였고, 영토를 다스리지는 못했다(마 14:3; 막 6:17). 다른 헤롯 빌립(2)은 “이두래와 드라고넛”을 다스렸고(4 BC - 34 AD, 눅 3:1) 헤로디아스의 딸 살로메와 결혼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4 BC - 39 AD), 빌립(1)의 아내 헤로디아스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세레 요한이 비난하자, 요한을 처형했다(Josephus, *Ant.* 17.14; 18.109-110, 136). 그런 안티파스를 예수는 “여우”라 불렀고(눅 13:31-33), 안티파스는 예수를 심판했다(눅 23:7-12).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스가 다스렸다(4 BC). 아켈라오스는 아버지 헤롯에게 죽은 형제 알렉산더의 아내였던 글라피라와 결혼하여 율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3천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Josephus, *Ant.* 17.313, 341). 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탄원하였고, 황제는 아켈라오스를 집권 10년 만에 폐위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갈리아로 추방했다(6 AD)(Josephus, *Ant.* 17.342-344). 아켈라오스의 관할 지역은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Quirinius)가 다스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아그립바 1세에게 넘어간다(Josephus, *Ant.* 17.355; 19.274).

IV. 아그립바 1세의 역경과 등극

아그립바 1세는 아우구스투스 통치기(Augustus, 27 BC - 14 AD)에 태어나 대부분의 성장기를 티베리우스 통치기(Tiberius, 14 - 37 AD)에 보냈다.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하는 신약 성서는 마태복음이 유일하지만(마 2:1-22), 티베리우스는 신약성서 곳곳에 등장한다.⁷⁾

“가이사라 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 22:17-21; 막 12:14-17; 눅 20:22-25)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눅 23:1-2)

“디베료 가이사라 위에 있은지 열 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사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눅 3: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친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라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중략)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 19:12-15)

7) 사도행전이 언급하는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17:7; 11:28; 18:2; 23:26)와 네로(25:8, 11, 12, 21; 26:32; 27:24; 28:19) 뿐이다.

요세푸스는 티베리우스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어 귀족들을 기겁하게 하고, 야만스러운 재판을 통하여 사소한 일에 사형선고를 내리곤 했다”고 비판했다. 타키투스는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삼은 까닭은 그가 자신보다 잔인하고 교만하여 자신보다 나은 평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Tacitus, *Annales* 1.10). 수에토니우스 역시 티베리우스가 피소(Piso)와 공모하여 로마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게르마니쿠스를 죽게 하고 공포 정치를 했다고 악평했다(Josephus, *Ant.* 18.225; Suetonius, *Lives of the Caesars*, 41 and 6). 그러나 필로는 티베리우스가 “사람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매우 신중했으며 지각과 예리함이 탁월”했다고 격찬했다(Philo, *Legat.* 1.33). 그런 티베리우스로부터 칼리굴라는 넘치는 부와 영토, 평화와 조화 등 온갖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Philo, *Legat.* 1:8-38, 141).

아우구스투스 사후에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아그립바 1세는 로마에서 어머니 베르니케와 무탈하게 살고 있었다(Leon, 1960, 20). 그러나 어머니를 여인 뒤에는 사치와 낭비로 가산을 탕진하여 로마에 살 수 없었고, 유대로 건너가 빗쟁이들에게 쫓겨 자살까지 생각했다(Josephus, *Ant.* 18.144-149). 이 때 현명한 아내 키프로스(Cypros)는 남편에게 헤로디아스(누이)와 갈릴리 사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삼촌) 부부를 찾아가도록 주선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아그립바 1세는 갈릴리 티베리아스(디베라) 시의 재정관까지 되었으나, 안티파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갈라섰다(Josephus, *Ant.* 18.149-150). 이후 아그립바 1세는 시리아 총독 플라쿠스(L. Pomponius Flaccus)에게 얹혀살다가 뇌물 사건으로 총독과도 의절했다(Josephus, *Ant.* 18.150-154). 막대한 빚을 진 아그립바 1세는 여비를 꾸어서라도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암니아 행정관 카피토에게 구류되었다가 한밤중에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쳤다(Josephus, *Ant.* 18.155-159). 알렉산드리아에서 아그립바 1세는 아내 키프로스를 신뢰하던 시금행정관(Alabarch) 리시마쿠스(Alexander Lysimachus)에게 2만 드라크마를 빌려 로마에 갈 수 있었고, 키프로스는 자녀들과 유대로 돌아가 후일을 기약했다(Josephus, *Ant.* 18.159-160).

이런 사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되어 아그립바 1세는 궁지에 몰렸으나, 어머니 베르니케를 기억하는 안토니아의 도움으로 로마에 안착했다(Josephus, *Ant.* 18.161-167). 로마에서 아그립바 1세는 동갑내기 클라우디우스(Tiberius Claudius Nero)와 어울리는

한편, 클라우디우스보다 21세 어린 조카 겸 정적이면서 먼저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Gaius Caligula, 37-41 AD)와도 친하게 지내며 자신과 유대의 장래를 도모했다. 심지어 아그립바 1세는 칼리굴라가 빨리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 티베리우스가 병사할 때까지 투옥되어야 했다(Josephus, *Ant.* 18.168-237). 티베리우스는 신의 뜻을 물어서 자신의 직계 손자 게멜루스(Tiberius Gemellus, 16세)가 아니라 형제 드루수스의 손자이자 조카 게르마티쿠스(Germanicus Julius Caesar)의 아들인 칼리굴라(24세)를 후계자로 결정했다(Josephus, *Ant.* 18.205-223.). 당시 클라우디우스는 45세였으나 율리우스 가문이 아니었으므로 아우구스투스 전통에 따라 황제 서열에서 밀려났을 것이라고 한다(시오노, 1998, 220).⁸⁾

황제가 된 칼리굴라는 아그립바 1세를 석방하고, 그에게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와 리사니아의 관할권을 주었다(Philo, *Flacc.* 1.25). 트라코니티스, 가울라니티스, 바타네아 지역은 빌립이 사망한 34년부터 시리아 총독이 다스렸는데, 그 지역을 아그립바 1세에게 준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에야 아그립바 1세는 칼리굴라의 허락을 받아 유대로 금의환향할 수 있었다(39 AD)(Josephus, *Ant.* 18.27-28, 106, 108, 238). 이를 목도한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스 부부도 높은 지위를 얻고자 뇌물을 갖추어 로마로 갔으나, 아그립바 1세는 뒤따라가며 그들이 로마에 반역할 태세를 갖추었다는 편지를 황제에게 먼저 보냈다. 편지를 본 칼리굴라는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스를 갈리아로 유배 보냈고, 그들의 영토와 재산은 아그립바 1세에게 주었다(주후 39년). 아그립바 1세는 어려울 때 자신을 조롱했던 안티파스에게 보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Josephus, *Ant.* 18.220-255).

칼리굴라는 아버지 게르마티쿠스의 명성에 힘입어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등극했으나, 머지않아 자기 신격화에 집착하여 폭군으로 돌변했다(Josephus, *Ant.* 18.210, 258, 261, 269-272). 황제승배는 지도자를 백성과 신의 중간자로 예우하는 인류의 오랜 관습의 일종인데,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본격화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Divus)으로, 자신을 ‘신의 아들’(Divi Filius)로 명명하고, 황제의 신격(genius)과 보호신들(lares)에 대한 제례를 공식화했다.⁹⁾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할 뿐 아니

8) 율리우스 가문의 마지막 황제는 네로다. Dio Cassius, *Roman History* 62.18, LCL 176, 117.

9) 황제승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선정의 박사학위 논문과 각주들을 추천한다. 김선정, 2003, 특히 40-47.

라, 살아 있는 황제를 신의 아들 내지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는데, 특히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때 극심했다고 한다(김선정, 2003, 47). 로스토프체프에 따르면, 황제 들은 특히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하였다는 아폴로와 헤라클레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기를 선호했으며, 심지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는 황제숭배가 어 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국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한다(Rostovtzeff, 1926, 78).

특히 칼리굴라는 아폴로나 헤라클레스 뿐 아니라 제미니 자리의 쌍둥이들과 마르스, 여신 베누스 등으로 분장하여 여기저기 나타났으며, “자신의 상을 세계 유명 신전에 안 치하라”고 명하여 암니아와 알렉산드리아 등에서 일련의 사태를 야기하였다(Tacitus, *Annales* 7-8).¹⁰⁾ 칼리굴라는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Publius Petronius)를 대규모 군단과 함께 유대로 파견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칼리굴라 상을 안치할 것을 명했는데, 페트로니우스가 유대인들의 결연한 의지에 부딪쳐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에게 집행 철 회를 요청하자 황제는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39-40 AD)(Josephus, *J.W.* 2.185-203). 한편, 황제 숭배 문제로 칼리굴라와 유대 민족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그립바 1세는 로마로 건너가 칼리굴라의 단호한 태도에 기겁하여 기절까지 하였다고 한다(Philo, *Legat.* 266-267). 그러나 아그립바 1세는 황제상을 지성소에 안치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칼리 굴라에게 유대 전통을 진중하게 설명하였고, 그런 태도를 칼리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으나 자신의 뜻을 굽힐 정도는 아니었다(Philo, *Legat.* 331-337). 이에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머지않아 칼리굴라가 암살되었으므로 사태는 진정되었다(41 AD) (Tacitus, *Annales* 7-8).¹¹⁾

요세푸스에 따르면, 칼리굴라 황제가 집권 4년 8개월 만에 암살되었을 때, 아그립바 1세는 로마 원로원과 클라우디우스 사이에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도록 중재하였 다고 하지만, 요세푸스의 보도 외에 실상을 확인할 다른 자료는 없다(Josephus, *Ant.* 19.99-113, 201, 236-266). 이에 관하여 클라우디우스 사적을 보도하는 비유대계 사가 들이 침묵하므로 요세푸스의 극적인 보도의 진정성은 학계에서 논란이다(Riesner, 1998, 95). 사실 관계가 어떠한 클라우디우스 황제(41-54 AD)는 아그립바 1세에게 유대와

10) 칼리굴라의 “자기 신격화”로 인한 사건들의 전개 순서와 필로 및 요세푸스의 보도에 관하여는 다 음을 보라. 박찬웅, 2009, 27-52.

11) 칼리굴라 때, 알렉산드리아에서도 황제숭배로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Philo, *Legat.*; Josephus, *Ant.* 18.257-260; Eusebius of Caesarea, *Hist. eccl.* 2.4-5.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헤롯대왕이 다스리던 대부분의 영토를 다스리게 하였고, 아빌레네(Abila, 눅 3:1)와 레바논 산악지역과 길리기아 일부와 코마게네까지 하사했다.¹²⁾ 또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그립바 1세를 ‘친구’라 불렀고, 로마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풍습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칙령까지 내렸다(Josephus, *Ant.* 19.287-291). 클라우디우스는 비운의 말년과 달리 집권 초기에는 매우 현명하여 주요 문서들을 본인이 상세히 읽어보고 직접 교정하였으며,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는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을 섬세하게 파악하여 대처했다고 한다(Rostovtzeff, 1957, 80). 클라우디우스 때에 아그립바 1세는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으로 만들기 위한 성벽 증축 공사를 시도하였고, 이를 시리아 총독에게 보고받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반역의 기운을 염려하자 아그립바 1세는 토대만 구축한 상태에서 성벽 증축을 중단했다고 한다(Josephus, *Ant.* 19.326-327).

V. 신약성서 배경으로서 아그립바 1세 시대와 그 직후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아그립바 1세 치하에서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주의 천사를 통해 풀려났으며, 예루살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었다(행 12:1-12).¹³⁾ 또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하였는데, 그 흉년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있었으므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조를 모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유대 장로들에게 전달했다(행 11:27-30).

한편, 수에토니우스(Suetonius, 70-122년경)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Chrestus)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들(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전한다(Suetonius, *Lives* 5.25.4). 여기서 “크레스투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직접 로마에 머물며 대중을 선동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12)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추대하는 데에 아그립바 1세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요세푸스는 지대했다고 보도한다. Josephus, *Ant.* 19.274-276; *J.W.* 206-209.

13) 로마 총독 빌라도의 예수 처형이 보여주듯이 유대인에 대한 사형을 포함한 중형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 그런데 유대에 대한 1차와 2차 로마 총독 지배 간극기에 아그립바 1세가 유대인에 대한 중형집행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산헤드린공의회 권한도 약화되어 아그립바 1세가 야고보를 처형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박찬웅, 2017, 200-203. 그러나 입증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크레스투스(Christus)는 로마에 없었으나 그 동료나 제자들이 로마에서 선동했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에 후자라면, “크레스투스(Chrestus)”는 모음 하나만 다른 “크리스투스”(Christus) 예수를 뜻할 수도 있다. 클라우디우스에 이어 황제가 된 네로 통치기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창궐했다”고 하므로, 클라우디우스나 칼리굴라 때부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을지 모른다(Tacitus, *Annales*, 15.44).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로마의 다신론 및 황제숭배에 저항했을 것이고, 황제숭배가 경감된 클라우디우스 때 여파를 몰아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을지 모른다.

사도행전도 십자가 사건이 있는 티베리우스 때로부터 오래지 않은 클라우디우스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였으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때마침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을 만나 장막 일을 동역하며 사사했다고 전한다(행 18:2).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에 온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 일행과 동역하였고,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과 많은 고린도인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한다(행 18:5-1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에토니우스가 언급한 크레스투스 선동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헤롯 가문이 보여주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 다니곤 하였으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건너가 전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적극적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갔을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라는 바울의 주장(갈 2:8)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위시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여” 주셨다고 보도한다(행 10:45). 또한 베드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41-54 AD) 시몬 마구스(8:9-24)를 제거하기 위하여 로마에 갔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20 BC-50 AD)를 만났다고 한다(Eusebius, *Hist. eccl.* 2.14, 17.).

심지어 바울의 회심 이전에 로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직후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행 2:5), 성령강림을 체험하고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 들었기 때문이다(행 2:9-11).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를 포함한 천하 각국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다. 또한 “헬라과 유대인들”과, 스테반이 논쟁한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행 6:1, 9-10) 중에도 로마에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스테반 환란 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홀어진 자들”에게서 도를 듣고 주께 돌아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행 11:19-20) 중에서도 로마에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그립마 1세는 유대에서 3년, 가이사라에서 4년을 통치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그립마 1세는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연설하였는데, 백성들이 그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크게 외쳤고,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까닭에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에 먹혀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행 12:21-23, 44 AD)(Josephus, *Ant.* 19.343-351; Tacitus, *Annals* 12.23).¹⁴⁾ 이와 달리 요세푸스는 아그립마 1세의 사망 원인을 왕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즉, 아그립마 1세는 “가이사라로 이전한 기념 축제에서” “순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 뿐이고, 그 옷이 “새벽 햇빛에 번쩍여 신비한 광선을 발하였는데,” “아침꾼들(ἀκίμακες)이 여기저기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생멸하는 사람이 아닌 그 이상으로 숭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¹⁵⁾ 즉, 아그립마 1세가 죽은 까닭은 “은으로 만든 옷”과 “새벽 햇빛”과 “아침꾼들”이 숭배한 결과일 뿐, 정작 그 자신은 아침꾼들에게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Josephus, *Ant.* 19.3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립마 1세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새의 징조를 보고 충격을 받아 복통을 일으켰고, 그런 왕을 위하여 백성들은 애곡하고 기도했으며, 왕은 백성들을 보고 울었는데, 그런 지 5일 만에 아그립마 1세가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이다(Josephus, *Ant.* 19.346-350). 이와 달리 사도행전은 아그립마 1세의 사망 원인을 그 자신에게 돌리고 있으며, 그의 숨통이 끊

14) 아그립마 1세는 44년에 사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한 날”의 사건 때문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Riesner, 1998, 115.

15) 헨헨은 아그립마 1세에 관한 설화와 베드로에 관한 설화를 대조시킨다. Haenchen, 1987, 562-563.

어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번성”한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12:23-24).

아그립마 1세는 아내 키프로스가 낳은 아들 아그립마 2세(17세)와 딸 베르니케(Bernice, 16세)와 마리암네(10세)와 드루실라(6세)를 남겼다. 당시에 마리암네와 드루실라는 가이사라와 세바스테(사마리아)에서 모욕을 당했다(Josephus, *Ant.* 19.354-359). 또한 로마 행정부는 17세의 아그립마 2세가 유대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으므로 아그립마 2세는 당분간 로마 황궁에 머물러야 했다(Josephus, *Ant.* 19.354, 362). 대신 칼키스의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관할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로마 황제에게서 받았고, 유대 지역에는 파두스(Cuspius Fadius, 주후 44-45)에 이어 티베리우스 알렉산더(Tiberius Alexander, 46-48)가 총독으로 파견되었다(Josephus, *Ant.* 19.363; 20.15; *J.W.* 2.220; Tacitus, *Annals* 12.23). 이 알렉산더가 바로 필로의 조카다.

알렉산더의 동생 마르쿠스 알렉산더(Marcus Julius Alexander)는 아그립마 1세의 딸 베르니케와 결혼하였으나 요절하였고, 이후 베르니케는 아버지의 형제 칼키스의 헤롯과 결혼했다. 칼키스의 헤롯이 죽자 베르니케가 “아그립마 2세와 간통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므로, 베르니케는 길리기아 왕과 재혼했다가 곧 이혼했다(Josephus, *Ant.* 20.145-147). 미모의 베르니케는 왕궁에만 갇혀 지낸 소극적인 여성이 아니었다. 유대를 위해서라면 로마 총독 플로루스(Florus)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직언한 강인한 여성이었던 것이다(Josephus, *J.W.* 2.314).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티투스 장군은 그런 베르니케를 사랑하여 로마까지 데리고 갔으나, 로마인들이 베르니케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티투스는 독신으로 살았다(Tacitus, *Historiae* 2.2). 한편, 베르니케의 여동생 마리암네는 알렉산드리아의 행정장관과 재혼하였고, 그 동생 드루실라는 에메사의 왕과 헤어지고 로마 총독 펠릭스(벨릭스, Antonius Felix, 52-59 AD)와 재혼했다(행 24:24) (Suetonius, *Lives*, 5.28.1; Josephus, *Ant.* 20.139-143; 행 23:24, 26; 24:2, 14, 22-27).

48년에 칼키스의 헤롯이 죽은 뒤에야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그립마 2세에게 칼키스 통치권을 주었고, 53년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와 “바타네아, 아빌레네, 드라고닛”에 대한 통치권도 주었다(Josephus, *Ant.* 20.138).¹⁶⁾ 그러나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내 아그리피나에게 암살당하였고, 아그리피나와 전남편의 아들 네로(17세)가 황제로 즉위했다.¹⁷⁾ 당시에 클라우디우스의 전처 메살리나의 아들 브리타니쿠스는 아

16) “유대인이면서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가신왕”이었던 아그립마 2세의 “이중 정체성”은 아그립마 1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조재천, 2017, 197-227.

직 어렸고(14세) 딸 옥타비아는 네로와 법적 남매이자 부부였으므로 아그리피나의 계략으로 네로가 등극한 것이다(Tacitus, *Annals* 12.25). 타키투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필자는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네로 황제까지의 가계도를 Table 1로 요약하였다.

Table 1 The Families of Tiberius and Drusus

Emperor Tiberius Claudius Nero (14-37 AD)		Drusus: the brother of emperor Tiberius	
Julia Caesaris: Tiberius' wife	Vipsania: Tiberius' wife	Antonia: Drusus' wife	
	Drusus (Tiberius' son who died young)	Emperor Tiberius Claudius Nero (41-54 AD): Drusus' son	Germanicus: Drusus' son
	Julia Livilla(Drusus' wife; daughter of Tiberius' brother Drusus; sister of Claudius and Germanicus)	Claudius' wives: ①Messalina ②Agrippina	Agrippina: Drusus' wife; the daughter of Julia the sister of Tiberius
	Children of Drusus the son of Tiberius include ①Tiberius Gemellus and ②Livia Julia	Claudius' children ①Octavia ②Britannicus: Messalina' son assassinated by Nero ③ Emperor Tiberius Claudius Nero (54-68 AD); the son of Agrippina and Gnaeus Domitius Ahenobarbus; Emperor Claudius' adopted son and son-in-law	Germanicus' children ①Drusilla ② Emperor Gaius Caesar Caligula (37-41 AD) ③Drusus Caesar ④Nero Cesar ⑤Julia Livilla ⑥Agrippina: Nero's mother who divorced Gnaeus Domitius Ahenobarbus and married to emperor Claudius

17) 아그리피나의 계략과 영향력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Tacitus, *Annals* 12.23-13.24.

VI. 나가는 말

사도 시대와 그리스도교 형성 초기에 주요 유대 지도자들 중 하나였던 아그립바 1세에 관한 역사 기록들은 저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2장은 아그립바 1세를 예수와 교회를 박해한 “헤롯 왕” 대열에 합류시킨다. 그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처형하고자 시도한 인물로서, 왕복을 입고 연설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추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 먹혀 숨을 거둔 악한으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 및 사도들의 흥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도행전과 달리 요세푸스는 아그립바 1세를 어려운 가정사를 극복하고 고난도 정치 곡예 끝에 마침내 유대 왕으로 등극하여 유대와 로마 모두에 유익을 끼친 유대 지도자 겸 로마 황실의 친구로 묘사한다. 요세푸스는 이방인(이두메인) 헤롯대왕에 대하여는 친-헬라인 정책을 쓰고 로마 신전과 건축물 짓기에 몰두한 잔인한 왕이라고 혹평하면서도, 아그립바 1세에 대하여는 동포를 위한 정책을 쓰고, 예루살렘에 즐겨 거하고, 율법 제사를 준수했다고 호평한다(Josephus, *Ant.* 19.329-331). 아그립바 1세는 비록 할아버지가 이두메인(헤롯대왕)이지만 할머니(마리아암네)는 유대 왕족이므로 유대인이라 할 수 있고, 헤롯대왕에게 무고히 처형당한 비운의 유대 왕자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세푸스는 아그립바 2세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고 자료도 제공받는 등 그와 친분이 깊었으므로 그의 아버지 아그립바 1세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¹⁸⁾ 또한 요세푸스와 아그립바 1세 및 아그립바 2세는 유대 민족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친-로마 행보를 이어간 인물들로서 요세푸스는 아그립바 1세에 대하여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심지어 요세푸스는 아그립바 1세가 가이우스 칼리굴라를 지지하여 황제가 되게 하고, 원로원을 설득하여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옹위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처럼 묘사한다. 이런 기록은 아그립바 1세가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 양대에 걸쳐 득세할 수 있었던 까닭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지만, 이를 지지할 만한 다른 현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를 상

18) 길만은 요세푸스가 로마에서 아그립바 2세뿐 아니라 베르니케도 만났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Gillman, 1989, xviii.

세하게 다룬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가 아그립바 1세에 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요세푸스 주장의 신빙성을 재고하게 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아그립바 1세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으나, 요세푸스와 비슷한 관점에서 아그립바 1세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필로 역시 헤롯 가문과 친분이 있었는데, 요절한 조카 마르쿠스 알렉산더가 아그립바 1세의 딸 베르니케의 첫 남편이었던 것이다. 필로는 가이우스 칼리굴라의 어리석음과 극악무도한 황제숭배를 비난하는 한편 아그립바 1세에 대하여는 유대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에 독실하고 지혜로웠으나 폭군 가이우스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부들부들 떨다가 마침내 기절하고야 만 나약한 인물로 묘사한다.

아그립바 1세에 대한 사가들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역사 기록들이 입증하는 것은 신약성서가 간헐적으로 묘사한 것보다 유대와 유대지도자들은 로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며, 유대지도자들 역시 매우 역동적으로 로마와 교류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애썼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와 사도 시대에 관한 선행 연구에 유대와 로마 관계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아그립바 1세를 중심으로 유대와 로마 관계사를 조망한 이 짧은 논문은 다른 주요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들이 이어져 사도시대와 신약성서 배경사를 더욱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Cassius, Dio. (1914-1927). *Roman History*. 9 Vols. LCL 32, 37, 53, 66, 82, 83, 175, 176, and 177. Trans. Earnest C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usebius of Caesarea (1926 and 1932). *Ecclesiastical History*. 2 Vols. LCL 153 and 265. Trans. Kirsopp Lake and J. E. L. Oult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sephus, Flavius (1926). *The Life; Against Apion*. LCL 186. Trans. H. St. J. Thacker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27-1928). *The Jewish War*, 3 Vols. LCL 203, 487, and 210. Trans. H. St. J. Thacker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30-1965). *Jewish Antiquities*, 9 Vols. LCL 242, 490, 281, 326, 365, 489, 410, 433, and 456. Trans. H. St. J. Thackeray, Ralph Marcus, Allen Wikgren, and Louis H. Feld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우리말 번역: 성서자료연구원 역 (1992). **유대고대사** 4 Vols. 서울: 달산.
- Philo* (1926-1962). 10 Vols. LCL 226, 227, 247, 261, 275, 289, 320, 341, 363, and 379. Trans. F. H. Colson, Ralph Marcus, and G. H. Whitak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uetonius (1914). *Lives of the Caesars*. 2 Vols. LCL 31 and 38. Trans. J. C. Rol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acitus, Publius Cornelius (1931 and 1937). *Annals*. 3 Vols. LCL 249, 312 and 322. Trans. Clifford H. Moore and John Jacks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우리말 번역서: 박광순 역. (2005). **타키투스의 연대기**. 서울: 범우.
- _____ (1925 and 1931). *Histories*. 2 Vols. LCL 111 and 249. Trans. Clifford H. Moo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우리말 번역서: 김경현·차전환 역. (2011). **타키투스의 역사**. 서울: 한길사.
- 김선정 (2003). **요한복음서와 로마 황제숭배**. 서울: 한들출판사.
- [Kim, S. J. (2003). *The Fourth Gospel and Roman Emperor Cults*. Seoul: Handle Press.]
- 류묘세 (2013).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3부: 주전 30-70년, 초대교회의 탄생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 서울: 두란노.
- [Ryu, M. (2013). *Bible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Drama Vol. 3: From the Birth of the Early Church to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Seoul: Duranno Ministry.]

류호성 (2017). “헤로디아는 ‘동생의 아내’가 아니라, ‘이복형의 아내’였다(막 6:17-18; 막 14:3; 눅 3:19).” **신학논단**, 89, 163-192.

[Ryu, H. S. (2017). Herodias was Never a Younger Brother’s Wife, but an Elder Half-brother’s Wife! (Mk 6:17-18; Mt 14:3; Lk 3:19). *Theological Forum*, 89, 163-192.]

박찬웅 (2009).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충돌: 요세푸스의 칼리굴라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3(2), 27-52.

[Park, C. W. (2009). Conflict between the Hellenistic and Jewish Culture: The Caligula Crisis in Josephus. **Canon&Culture**, 3(2), 27-52.]

____ (2017). 로마제국 시대 유대 사회의 중형재판권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89, 193-222.

[Park, C. W. (2017). Study on the Judicial Proceeding in the Jewish Society during the Roman Rule, **Theological Forum**, 89, 193-222.]

김석희 역. (1999). **로마인이야기 7: 악명 높은 황제들**. しおの ななみ(1999). 로마인의 物語. 서울: 한길사.

[Shiono N. (1999). *The Story of the Roman People Vol. 7: The Infamous Emperors*. Trans. S. Kim. Seoul: Hangilsa.]

조재천 (2017). 다중 정체성과 소통: 헤롯 아그립바 2세와 바울의 대화(행 25-26장)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6, 197-227.

[Cho, J. (2017). Multi-identity and Communication: The Dialogue between Herod Agrippa II and Paul. *Korea Evangelical Society of New Testament Studies*, 16, 197-227.]

Barrett, C. K. (1994).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2 vols. Edinburgh: T & T Clark.

Gillman, F. M. *Herodias at Home in That Fox’s Den*. Edited by Barbara Green.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89.

Keener, C. S. (2013).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Leon, H. J. (1960). *The Jews of Ancient Rome*. Peabody: Hendrickson.

Haenchen, D. E. (1977). *Die Apostel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우리말 번역서: 이선희 · 박경미 역. (1997). **사도행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Johnson, L. T. (1992). *The Acts of the Apostles*. Edited by Daniel J. Harrington.

-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 Kokkinoas, N. (1999). *The Herodian Dynasty: Origins, Role in Society and Eclips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Krause, A. R. (2017). *Synagogues in the Works of Flavius Josephus: Rhetoric, Spatiality, and first-century Jewish institutions*.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97. Leiden; Boston: Brill.
- Pervo, R. I. (2009). *Acts: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 Riesner, R. (1999). *Paul's Early Period: Chronology, Mission Strategy, Theology*. Translated by Doug Stott. Grand Rapids and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 Rostovtzeff, M. (1957).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2 Vols.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 Schwartz, D. R. (1990). *Agrippa I: The Last King of Judaea*. TSA 23. Tübingen: Mohr Siebeck.
- “Lives of the Caesars, Volume II”. Retrieved from <http://www.hup.harvard.edu/catalog.php?isbn=9780674995659> (2019. 5. 8.)

사도행전 12장 배후의 유대와 로마 관계사 - 아그립바 1세를 중심으로 -

문우일 (서울신학대학교)

이 논문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아그립바 1세(Marcus Julius Agrippa I)에 관한 다양한 역사 기록을 토대로 그리스도교 형성 당시의 유대와 로마 관계의 단면을 드러내고 신약성서 배경사 이해를 위한 역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그립바 1세는 사도시대의 정치 환경을 형성한 주요 인물들 중 하나로서 신약성서와 원시그리스도교 연구에 중요함에도, 그에 관한 선행연구는 슈바르츠(Daniel R. Schwartz)의 단행본(1990)을 제외하면 특정 주제 및 일부 기간 연구에 그치거나 보편적 이야기식 서술에 머물렀다. 더구나 사도행전은 아그립바 1세를 “헤롯(왕)”이라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간략히 다루므로 당시 시대 정황 파악을 위하여 그에 관한 개별 정리가 절실했다. 이에 이 논문은 아그립바 1세에 관한 행로와 사적(事績) 정리를 시도하되, 신약성서 및 유세비우스 등 그리스도교계 문헌 뿐 아니라 그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세푸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등 유대계 기록들과,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디오 카시우스 등의 비-유대계 문헌들을 참조하여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아그립바 1세에 대한 사가들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그를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피지배자에 머물지 않고, 로마의 정치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과 민족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 1 , 12 , , 가

